

# 광주 방문 6500만명…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 서막

5·18 제45주년·G-페스타 등 효과…전년대비 6.8% 증가

숙박 방문객 6% 늘어 체류형관광 확대로 질적변화 꾀해

2025 광주방문의 해 마무리…‘지역관광 도약’ 발판 다져

‘광주방문의 해’를 운영한 올해 광주를 다녀간 방문객이 6501만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당초 목표인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의 서막이 활짝 열린 만큼 내년에도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관광도시의 기틀을 보다 탄탄하게 다진다는 계획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광주 방문객 수는 6501만명으로, 전

년 대비 6.8% (411만명)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3월 ‘광주방문의 해’ 선포 이후 국제행사 연계, 광주만의 특화관광상품 개발, 통합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온 점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상반기에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계기로 광주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크게 확대됐다. 전일빌딩245 방문객은 전년대비 51% (5만6000명), 국립5·18민주묘지는 15.5% (3만9000명) 증가했다. 5월 전체 광주 방문객 수도 19% (108만명) 늘었다.

6~8월 방문객 수가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6월에는 전국 시·도 중 방문객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7월에는 2위, 8월에는 3위를 차지했다.

하반기에는 총장축제를 포함한 지(G)-페스타 가을 시즌과 호남관광문화주간 등 주요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됐다. 10월 방문객이 29.8% (158만명) 증가해 연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방문의 해는 방문객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 확대라는 질적 변

화를 이끌어냈다. 2025년 숙박 방문자는 전년 대비 5.9% (251만명) 증가했으며, 평균 숙박일수도 함께 늘어 체류 수요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에는 캠핑장·펜션의 소비 비중이 15.2%, 11월에는 내국인 호텔 이용 비용이 10% 증가하는 등 체류형 업종에서 소비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평균 체류시간도 3032분 (50시간32분) 으로 전국 평균보다 525분 (8시간45분) 길고,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광주방문의 해’는 지난 3월 서울역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관광슬로건 ‘광주가 왔다! ○○이 온다!’를 발표하고, 연중 지속적인 관광활성화 전략을 전개했다.

광주시는 G-페스타 광주 확대 운영,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대축제,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적 행사를 관광 홍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주요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출시해 방문객 유입 효과를 높였다. 또 광주·전남·전북이 함께 ‘호남관광 문화주간’을 운영해 가을철 관광광객을 호남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역 간 협력 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광주만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상품도 광주관광의 경쟁력을 높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지를 연계한 역사관광,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과 연계한 ‘소년의 길’ 인문·예술 관광, KIA타이거즈 야구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상품 등을 선보이며 관광 콘텐츠를 다변화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행사 현장 홍보부스 운영과 관광안내 기능을 강화해 관광지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방문의 해’ 추진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발전시키기 위해 시정 총괄 조정 형태의 태스크포스(TF) 체계를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규 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통해 확인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TF 협의 체계를 지속 운영해 방문의 해의 성과가 중장기 관광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광주관광 도약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발로 뛴 기부 행정’ 전남, 고향사랑기부 목표 달성

모금 9000건 넘고 올해 목표 10억 훌쩍 넘어 눈길

1년전보다 규모·속도 상승…현장 중심 홍보 성과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을 앞두고 올해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전남도는 26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10억원, 모금 건수는 9001건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액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억 7999만원 (8325건) 과 비교해 모금액은 1.2배, 건수는 1.1배 증가한 수치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현장 중심 홍보 전략을 꼽았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도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닌 지역 상생의 의미를 현장에서 설명하며 참여 공감대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전략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전남도는 지난 5일 시군과 함께 도청에서 ‘제1회 고향사랑 기부’의 달’ 행사를 열어 참여 분위기를 집

에서만 575건, 6200만원의 기부가 접수됐고, 하루 동안 전남으로 모인 기부금은 총 2927건, 3억6000만원에 달했다.

답례품 경쟁력 강화도 모금 확대를 뒷받쳤다. 전남도는 기존 농·수·축산 물 위주의 답례품에서 나아가 지역의 생활과 이야기를 담은 체험형 답례품을 발굴·확대에 기부자가 전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 이는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며 반복 기부와 신규 참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국 각지와 해외에 거주하는 출향도민과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의

자발적 참여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SNS와 각종 행사, 캠페인을 통해 기부 취지를 알렸고, 도와 시군 공무원들도 지역 축제와 향우회, 도시 거점 캠페인 등을 통해 기부 참여 방법을 안내하며 모금 확대에 기여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과 사람을 다시 잇는 제도”라며 “기부자의 목소리를 기금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에는 실질적 변화를, 기부자에게는 더 큰 보람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본문

## 조국, 광주·전남 민심 청취…선거 방향성 제시

현장 최고위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전남을 찾아 지역민의 민심을 청취하고, 지방선거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소통 행보에 본격 나섰다.

조국 대표는 26일 전남 무안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인 선거구제를 ‘적폐’라고 지적하며 ‘3~4인 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지금의 지방자치 현실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지마 선출이 난무하며 군부독재 시절 임명제가 부활한 느낌마저 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특정 정당이 절대다수인 의회가 같은 당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겠냐”며 “정치적 짬뽕미가 이루어지고 부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형제가, 부부가 대를 이어 단체장을 맡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

통령의 (2인 선거구제 폐지라는) 오랜 소신을 따라주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장성군에서 당원간담회를 갖고 당원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으며, 곡성군을 찾아 ‘조국혁신당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

곡성군 정책설명회에서는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치개혁 과제와 지역 정치 혁신방안을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앞서 조 대표는 광주에서도 동구 5·18민주광장과 전일빌딩245를 찾아 당의 방향성과 함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정치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호남과 TK 등 1당 독점의 지위를 누리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메기’ 역할을 하겠다”며 “광주시장 후보로 염두에 둔 후보는 있으며, 전남도지사 후보는 물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고흥 무열사 고문서 등 5건

전남도 문화·무형유산 지정

전남도는 역사·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전통기술·공예품 문화를 담은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 화산 능주들소리 등 문화·무형유산 5건을 최근 전남도 지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전남 지역이 지닌 역사성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고흥 무열사 소장 고문서’는 조선 무반 가문 역사를 담은 고문서로 임진왜란 당시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된 진부성(1566~1638)과 그 일가 5대에 걸친 문서 70점으로 구성됐다.

흥패·교지·호구단자·서간류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또 오경식(1947년생) 장인이 전남도 무형유산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전통 국악기 제작 기술 계승을 하고 있으며, 전남도 악기장 보유자였던 고 강사원 선생으로부터 전통 장구 제작 기법을 사사받아 현재까지 유일하게 전통 방식에 따른 제작 기술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삶의 노래인 들소리·길쌈노래 등 3종목은 신규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화산 능주들소리’는 농경 공동체의 협력과 유대 문화를 생생히 보여주는 전통 노동요로, 현재까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 ‘화산 내평리 길쌈노래’와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는 길쌈 과정에서 불리던 민요로, 오랜 기간 학술 자료로 축적된 역사성과 지역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진도 길쌈노래는 외부 음악 요소를 적극 수용해 지역화한 독특한 전통 민요로 인정됐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응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원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본문

## 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점검

특위 2차 회의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청취·현안 질의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을 둘러싼 점검이 본격화됐다.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과 공공기여 인정 범위, 관리·감독 책임 구조를 집중 점검하며 후속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최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광안리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 역할이 적절하게 이행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개발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을 개발이익 환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남도와 순천시, 경제자유구역청 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동욱 위원장(순천4)은 “특별위원회는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례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제 환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기획의 본질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전달했다. 특히 정책과 행정을 어떻게 기획하고, 메시지와 스토리로 도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팀 빌딩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 내 협업 강화, 자기관리와 지속 가능한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컨디션 트레이닝, 직원 간 소통·협력 시간도 함께 진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공직자들이 혁신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한층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전남도 공직자들이 기획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미래형 행정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gwangnam.co.kr